



RIS

RHRD

## 광역 생태네트워크 지도 만든다

-충남도 '정맥중심 국내처음'·'금남·금북정맥 내달부터 조사-

금남·금북정맥(錦南·錦北正脈) 등 충남의 핵심 생태축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자연환경조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이를 토대로 2010년까지 충남 전역의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 환경생태지도(biotop map)가 제작된다. 정맥 중심의 생태지도 제작은 국내서 처음이다.

22일 충남도는 2008년까지 금남·금북정맥, 금강, 서해 연안 등 충남의 핵심 광역생태축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첫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관련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한편 환경 NGO와 환경생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충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단'을 다음 달 초까지 구성키로 했다.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단은 자연환경조사 등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충남도는 자연환경 조사와 병행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모두 36억원을 투입해 광역 생태지도의 제작에도 들어간다.

환경생태지도는 금남·금북정맥, 금강, 서해 연안, 환경보전지역의 종합 환경실태 및 동·식물 식현황을 도면화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생태지도

작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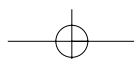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충남 생태축의 생태환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생태지도가 제작되면 충남 전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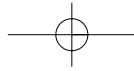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특히 생태지도에는 논산, 계룡, 금산, 부여 등 금남정맥 4개지역과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연기, 청양, 예산 등 금북정맥 7개 지역의 생태환경이 담길 예정으로 정맥 중심의 생태지도 제작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충남도는 우선 내년에 천안, 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지도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맥은 우리나라 산줄기의 옛 이름이며 금북정맥은 경기 안성 칠장산에서 충남 태안 인흥 지령산에 이르는 292km의 산줄기를, 금남정맥은 전북 무주 주화산에서 충남 부여 부소산에 이르는 131km의 산줄기를 각각 일컫는다.

충남도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해 환경생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생태지도 제작은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RIS

RHRD

## 충청남도내 산업단지 16곳 내년 조성

—국가 1.지방 12.농공 3개… 경제 활성화 기대—

내년에 충남지역에 16개의 산업단지가 신규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내년에 도내에 국가산업단지 1개와 지방산업단지 12개, 농공단지 3개 등 모두 16개 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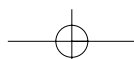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새로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 중 아산 둔포단지(일명 아산테크노밸리)와 당진 송산단지 등 2개는 최근 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서산 대산단지(현대오일뱅크단지)와 대산2단지(주에쓰오일단지), 연기 전의단지 등 3개는 실시계획을 마련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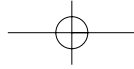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또 공주 사곡단지와 예산 합덕단지, 보령 영보단지 등 3개는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뒤 도와 협의 중이며, 천안 풍세단지와 차암단지, 공주 탄천단지, 서산2단지 등 4개는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아산 도고단지와 둔포2단지, 공주 보물단지 등 3개 농공단지도 내년 착공을 앞두고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입주희망 업체가 없어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도 내년 말 착공식을 갖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충남에는 국가산업단지 4개와 지방산업단지 27개, 농공단지 73개 등 모두 104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가동 중이다.





RIS

RHRD

## 서천 장항산업단지 연내착공하라

— 정부, 이번주 구성안등 후속조치 발표—

정부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민관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원점 차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장항갯벌 매립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찬반 갈등이 너무 거센데 따라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민관공동특위를 구성, 특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번 주 중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그동안의 정부 검토결과와 민관특위 구성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찬반갈등이 거세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민관특위를 구성기로 한 것”이라며 “특위에서 나온 결론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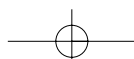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민관특위 구성은 새만금사업이나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여부문제 등의 전례를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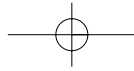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정부는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아 1999년 공사를 전면중단한 채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했으며, 2003년 6월에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지속 추진을 전제로 새만금 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 재논의 했었다.

지난해 8월에는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해 한탄강댐 건설을 확정짓기도 했다.

그러나 서천군에선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만큼 하루 속히 장항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장항산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17년이나 됐지만 정부가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대로 착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IS

RHRD

##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충남도, 현안사업 공동 해결을 위해 시군과 머리 맞대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1월 3일 오후 2시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道와 시·군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의 역동성 확충, 활력있는 농·어촌 만들기, 저출산·고령화대책, 친환경 생태환경 구축 등 분야별 열띤 토론을 통해 민선4기의 새로운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과 과제가 모색 되었다.

이날 ▲김봉한 공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역경제의 역동성 확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도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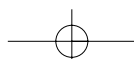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살기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주민참여가 제도와 되어야 하며, 전문가와주민간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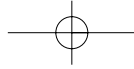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는 “지역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희성·장갑수 박사는 “충남의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남·금북 생태축의 설정과 천안, 연기, 공주, 논산, 계룡시의 생태축 보전·복원 및 ‘당진-태안-서천 광역완충녹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道와 시·군의 관계자가 직접 토론하여 이론적인 연구와 실무행정이 만나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모아, 민선4기 도정의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의미를 두었다.





RIS

RHRD

## 충청남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의정발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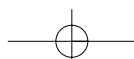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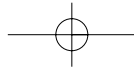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0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보령시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의 발전방향과 분야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의원, 연구원 관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체 및 각 상임위별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전체세미나에서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는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 향상은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가치를 위한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볼륨적 요소로 파트너십을 활용한 전문성 지원체제 형성, 둘째, 지식적 요소로 충남도의회 지식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 셋째, 기술적 요소로 의원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의원 학습조직 활용, 넷째, 행태적 요소로 조직진단과 핵심업무 중심의 기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상임위별 세미나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박재정 충남대학교 교수의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는 ▲이영신 한서대학교 교수의 도내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는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의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는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RIS

RHRD

## 충남발전연구원 제2차 정기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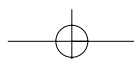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 성과관리시스템과 임금피크제 전국 지방연구원에서 최초 시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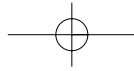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2월 5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팀제운영, 임금피크제 도입, 부서장 순환보직 등 혁신안과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직제규정, 재무회계규정, 연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다.

특히, 혁신(안)으로 제출된 안건 중 성과관리시스템과 임금피크제는 전국 지방연구원에서는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성과관리시스템은 명확한 목표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개인별 성과를 산정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제도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으며, 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60세) 3년전인 58세부터 적용하여 58세는 연봉의 95%, 59세는 연봉의 90%, 60세는 연봉의 85%를 지급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이완구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충남발전연구원이 도와 시 군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IS

RHRD

## 충남발전연구원 조직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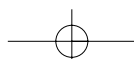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자 2007년 1월 1일 자로 부서별 조직을 팀제 조직으로 개편하고 각 팀장을 발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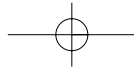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연구실 조직개편 : 4부 2팀 2센터(국) ⇨ 8팀 3센터(국),

사무처 : 변동 없음



▲ 연구실장으로는 송두범 연구위원이 발령되었으며, 각 팀별로는 기획정보팀 강영주 책임연구원, 자치행정연구팀 성태규 연구위원, 지역정책연구팀 윤갑식 책임연구원, 도시계획연구팀 박철희 책임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 신동호 책임연구원, 문화관광연구팀 이인배 연구위원, 환경생태연구팀 정종관 연구위원, 산업디자인팀 권영현 연구위원이 팀장으로 발령 받아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RIS

RHRD

## 06년 혁신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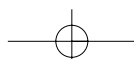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 충청남도/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주최 -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에서는 2006년 10월 20일 충남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혁신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충청남도의 각 혁신기관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혁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혁신창출 지원기관과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충남도의 여러 혁신기관의 업무가 중복성이 있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정재홍 R I S사업단장이 “선진국 수준의 농업경쟁력 확보”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재홍 R I S사업단장의 발표 후 앞으로의 포럼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결과 포럼의 명칭을 「혁신지원기관네트워크포럼」으로 변경, 포럼개최 시기 및 횟수를 2007년 4월과 10월, 년 2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포럼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토론하는 기회가 되었다.







RIS

RHRD

## “제 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공동주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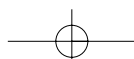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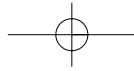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2006년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 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1월 7일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로 개막식이 거행되었으며, 전시회장 오프닝과 함께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박람회가 약 5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전국에서 지역혁신예선대회를 거친 여러 혁신우수사례들이 약 10개의 세미나실에서 4일 동안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각계의 전문가들 및 학생, 시민들이 경청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행사였다.

2006년 8월 30일 신성대학에서 개최된 『충남 지역혁신예선대회』에서 수상한 충남의 12개의 지역혁신사업 중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본선심의에서 수상한 9개의 사업(건양대, 백석대, 호서대, 에버테크노, 진바이오텍, 제닉, 충청남도, 청양군, 연기군)들이 이번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발표 및 전시되었다.





RIS

RHRD

## “충남 투자유치 포럼”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주대학교 공동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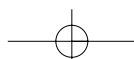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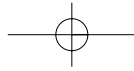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지역혁신협의회, 공주대학교는 2006년 11월 23일(목요일) 공주대학교에서 오후 3시부터 『충남의 투자유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충남 투자유치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김봉한 교수(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부)가 좌장으로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충남의 투자유치의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수중 교수(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부)가 “충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관한 연구”, 오춘식 과장(경남도청 투자유치과)이 “경상남도의 투자유치사례”, 강영주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가 “충남의 FDI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충남의 투자유치에 관한 주제발표 후 한국은행, 충남전략산업기획단 등 약 10명의 각 기관의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토론이 90분에 걸쳐 이어졌으며, 충남의 투자유치의 현황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RIS

RHRD

## “충남·전북지역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공동주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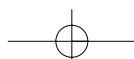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2006년 10월 20일(금요일) 대전 대덕컨벤션타운 2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오후 2시부터 『충남·전북지역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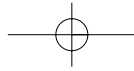
심포지엄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부장인 송두범 연구위원이 “국가문화관광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에 대한 기초발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주제와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지역의 관광인적자원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미숙 교수(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가 “충남 관광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과제”, 성기만 박사(전라북도 관광진흥과 전문위원)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산업분야 인력양성 현황 및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각 지역의 관광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주제발표 이 후 공주영상정보대학 양광호 교수가 “충남 농촌관광 인력양성 사례”를 호원대학교 장병권교수가 “전라북도 문화관광부문 인적자원개발 성공사례”발표가 진행되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운영중인 관광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 후 관광산업 및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5인(좌장: 한서대학교 이영훈교수)이 주제발표와 사례발표에서 도출된 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RIS

RHRD

## “평생학습도시와 노인인적자원개발”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지역사회개발연구회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지역사회개발연구회는 2006년 12월 2~3일 제주도 제주시 유니온 패밀리 회의실에서 『평생학습도시와 노인인적자원개발』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제1일차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부장인 송두범 연구위원과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김만희연구위원이 “충남지역 평생학습도시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경기도 이천시 평생학습담당인 최명주박사가 “이천시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사례”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학습 전문가 5인(좌장: 박해도 새마을금고연합회 관리이사)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제2일차에서는 대원과학대학 전해황 교수가 “노인취업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고, 자인면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담당 전나영 선생이 “노인평생교육 참여와 자아통합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평생학습 전문가 5인(좌장: 이운영 지역사회개발연구회 회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